

경제

기아차 CUV 역사 다시 쓴다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2400억 투입 6년만에 '스포티지R' 출시 승차감·안전성 등 뛰어나 고객몰이 기대

기아차 광주공장이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시장의 역사를 다시 쓴다. 23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신차 발표회를 연 스포티지R은 기아차가 2004년 8월에 출시한 뉴 스포티지에 이어 6년 만에 출시하는 후속 모델로 총 2천400억원을 투입해 3년7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광주공장의 야심작이다.

국내의 시장에서 91만대를 판매한 광주공장의 히트작 '뉴 스포티지'의 브랜드 파워를 계승한 스포티지R은 세단의 승차감과 SUV(스포츠용 차량)의 안전성, 미니밴의 공간 활용성, 개성있고 세련된 스타일이 결합된 '진보적 도시형 CUV'를 콘셉트로 개발했다.

서브네임 R은 고성능 R엔진을 장착하고 스포티지와 함께 '새로운 혁신(Revolution)'을 이끌어간다는 의미

에서 붙여졌다. 전장과 전폭, 전고가 각각 4천440mm, 1천855mm, 1천635mm로 현대차 '투싼IX'(4천410/1천820/1천655)보다 30mm 길고 35mm 넓지만 높이는 20mm 낮다. 기존 스포티지보다도 90mm, 35mm만큼 길고 넓어졌고 높이는 60mm 낮아졌다. 최근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 낮아지고 있는 SUV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기아차는 또 스포티지R에 명품 심장인 R2.0 디젤엔진을 비롯해 세타II 2.0 가솔린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차세대 친환경 디젤엔진인 R2.0 엔진은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40kg·m의 강력한 파워와 15.6km/l의 동급 최고 연비(2문구동, 자동변속기 기준)로 탁월한 경제성을 확보했다. 세타II 2.0 가솔린엔진도 최고출력 166마력, 최대토크 20.1kg·m, 연비

■ 스포티지R 제원



Table with 3 columns: 구분, 디젤 2.0(R 2.0), 가솔린 2.0(세타II 2.0). Rows include 엔진 배기량(cc), 엔진 최고출력(ps), 엔진 최대토크(kg), 최대 타이어.

12.1km/l의 우수한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다. 첨단 안전시스템인 차체자세제어 장치(VDC),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멀티통합 토크머러 등 다양한 안전사항과 승객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충돌안전 설계 등으로 최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스포티지R을 국내에서 3만7천대, 해외에는 10만3천대 등 모두 14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1년

에는 국내 4만8천대, 해외 19만2천대 등 연간 24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스포티지R 고객에게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의 경우 5년 10만km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가격은 디젤 2문구동이 1천990만원~2천820만원, 디젤 4문구동 2천170만원~3천만원, 가솔린 1천855만원~2천515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종합건설사 불공정 하도급 여전

지급보증서 교부 18% 불과 ... 38%가 60일 이상 어음 발행

광주지역 종합건설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주경기장 위축 여파로 전문건설업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736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사실적 총액은 1조 5천19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4천

777억원보다 3%(416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공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경영의 손익분기점(공사실적 10억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60%(445개)에 달해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4천만원 이상 공사 3천788

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건수는 전체 하도급 건수의 18%인 688건에 불과해 상당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도급 업체인 일부 종합 및 주택건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가 하도급과 장기간 어음 발행 등을 일삼아 하도급 공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어음 수령 실적 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어음 수령 총액 1천402억 800만원 가운데 38%인 528억7천200만원이 법정 지급기일을 지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업체의 경영압박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이상헌)는 23일 화순 도곡스파랜드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했다. 전남도회는 이날 대학생 100명과 중·고등학생 68명에게 1억3천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며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등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중대형 아파트 인기

작년 거래량 1만3천여건 ... 전체의 절반 차지

지난해 광주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거래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업체 사량방신문(www.sarangbang.com)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2만6천건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년 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784건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꾸준히 거래됐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966건(48.7%)으로 전년보다 4.2%포인트 감소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134㎡ 아파트가 1만2천966건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고 60~84㎡가 1만877건, 40~59㎡ 2천522건, 135~165㎡ 748건, 40㎡ 이하 487건, 165㎡ 이상 70건 등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7~8년간 민간 건설사들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대별로는 매매가 5천만~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1만1천753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1억~1억5천만원 미만은 6천800건(25.3%), 1억5천만~2억 미만 3천746건(13.9%), 2억만~1천573건(5.9%), 3억원대 825건(3.1%), 4억 이상 107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으로 179㎡형(5층)이 5억8천700만원에 거래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자판사 쌍용차 판매

체어맨 등 3종 MOU체결

대우자판은 23일 쌍용차와 체어맨 H, 체어맨W, 로디우스 등 3개 차종에 대한 비독점적인 국내 판매권을 갖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 공급가격, 판매조건 등 세부 내용을 이날 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연향뉴스

Table with 2 columns: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Values include 1,681.82 (+9.15), 526.42 (-0.65), 3.90% (+0.13), 1,137.10원 (+1.40).

금호타이어 주식매매 일시 정지

어제 '자본금 50%이상 잠식' 공시 ...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주식거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81.6% 잠식)을 공시해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금호타이어 주권 및 1WR(주식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다시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거래소측은 "금호타이어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의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내려졌던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는 현재 금호타이어의 재정상태 미비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신호다. 관리종목 지정은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날 금호타이어 주식은 3천155원에 218만7천90주가 거래되는 등 이상 거래 현상을 보였다. 지역 증권사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자본 상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기업회생에 대한 투기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형성되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향뉴스

금호산업 투자자 합의 마무리 국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합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전략적 투자자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고서 추후 마땅한 기업이 나타나면 대우건설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에 따르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의 절차가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날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금호 계열사들의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출자전환 확산서를 체결한다' 내기로 했다. /연향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해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례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리 0여명 * 초보 및 경력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학과 이수자 기본급+수당.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권리사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속기록물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끊임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